

##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 11:8).

: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논리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게 되는 곤란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자세를 계속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sup>눅 12:22</sup>. 순종하며 나아가기 전에, 미리 결과를 걱정하는 마음도 버리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 이십니다. 걱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히 11:8)

### 1.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이 생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때 논리적으로 답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 2.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염려하지 말아라(눅12:22)’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챔버스는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다 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돋고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진짜 신앙입니다. 염려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 한 줄 노트

- ❶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 ❷ 염려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묵상질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나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 묵상 레시피 | 창세기 11:27–12:9 + 히브리서 11:8

아브람과 그의 가정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11:28–30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령하신 것,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2:1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2:2–3절, 7절)

아브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2:4절, 7–8절)

네개(12:1절) (히) 르카 심성적 여격

특정한 주어를 강조함. 내가 ‘네개’. 고립, 외로움, 혼자됨, 격리, 물러남의 개념들  
주어가 단호하게 무언가 끌어내어 자신의 회복,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내포함.

본토 (히) 에레츠 땅 아브람이 살고 있던 땅

친척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가족 공동체

## 짧은 기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종종 근심에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 손을 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한스-게오르그 로츠 「헤른후트 성경묵상집 289판」